

생각의 전개

2023.09 [22~27] 현대시+수필 '별-금강산시 3 / 길 / 편지'

☆☆☆

<보기> 확인

—<보 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나)는 '길을 통한 성찰 및 깨달음' 정도로 주제를 잡아두면 되겠죠?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선지 판단할 준비를 합니다.

—<보 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수필인 (다) 작품의 주제도 챙겨두고 갑시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한다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생소하니, 조금은 꼼꼼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썩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 낙화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첩첩한 산길’에 ‘외로움도 잊고’ 혼자 와서 자연의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자세한 해석은 선지와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A]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B]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C]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D]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E]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F]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든 줄 알았지만, 사실 '길'은 사람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꽤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에, 글쓴이는 ‘당신’이 보내 준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할 겁니다. 실제로 ‘노란 슬픔’이라는 표현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글쓴이는 어떤 ‘처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처

녀'에 대한 기억에 슬픈 것이겠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충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아름다운 것에 견주다가 '수선화'에 비길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처녀'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가슴의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슬픔'이라는 반응을 얻게 된 것이었네요. 그래서 글쓴이는 '당신'이 보내 준 '수선화'를 치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네요.

밤이 아직 쉼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겅이나 언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지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켜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길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웅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췌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췌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깨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 정월 대보름 다음날.

이렇게 '처녀'와 관련된 '수선화' 이야기를 끝낸 뒤, 글쓴이는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때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가 벌어지는 때네요. <> 표시한 부분은 굳이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겠죠? 모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일 테니까요. 글쓴이는 이렇게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양면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7%	8%	5%	6%	4%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공통점' 문제입니다. 늘 강조하던 대로, '거시적인 측면'의 선지 위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쓸데없이 미시적인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① 빛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문학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해설	'빛대어 표현하는 방식', 즉 '비유법'은 문학의 본질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내면이나 상황 등을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이 선지는 답일 확률이 99%에 육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볼까요? (가)의 경우, '장목'이 팔을 벌리고 서 있다고 하며 의지를 지닌 존재로 빛대고 있고, '낙엽'을 '낙화'에 빛대며 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의 경우, '길'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다)에서는 '고인 샘물 같은 눈' 등을 통해 비유법을 확인할 수 있네요.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네.
해설	'과거 회상'에 대한 선지가 나올 때 가장 일차원적인 방법은 '시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의 '왔더니라~'와 (다)의 '좋아하였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근거로 하면 바로 '과거 회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용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제'에 주목하면 빠른 선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랑 (다)에는 없는 것 같다.
해설	'영탄적인 어조'를 찾으려면 문장의 끝부분 위주로

	살피면 됩니다. (나)와 (다) 어디에서도 ‘영탄적 어조’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다만 (가)에는 ‘아아’라는 명백한 영탄적 어조가 보이네요. 비록 문장 끝부분은 아니어도, 눈에 확 띄는 표현이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랑 (다)는 전혀 아닌데.
해설	‘예스러운 종결 표현’은 쉽게 말해 ‘옛날 말투 같은 종결 표현’을 의미합니다. (가)의 ‘~더니라’라는 표현은 뭔가 옛날 말투 같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고풍스러운 느낌’은 ‘옛것과 같은 맛이 있는 느낌’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스러운 말투’가 있으면 당연히 허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에서는 요즘은 안 쓸 것 같은 그런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정답으로 고르기는 어렵겠습니다.

생각 심화

참고로, ‘예스러운 말투’와 ‘고풍스러운 느낌’은 각각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스러운 말투’는 맞는 선지로, ‘고풍스러운 느낌’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요. 만약 이 선지에서 헛갈렸다면 해당 문제들을 확인해보면서 감을 잡으시면 되겠죠?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간의 경과는 느낀 적이 없는데?
해설	(가)~(다) 모두 ‘낙엽’, ‘꽃’, ‘유월’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시간의 경과’를 보여 준다는 건 허용하기 어렵죠? ‘시간의 경과’라는 상황 자체를 읽어낸 적이 없으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0%	13%	66%	9%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 길을 따라갔지.
해설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 모두 화자가 지나 온 곳의 풍경입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두 별들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네.
해설	‘바다의 별들’은 ‘장엄히 뿌리어진’ 것으로, ‘하늘에 별들’은 ‘꽃과 같이 난만’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서 떠오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 형상화’는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이 작품의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기때문에, 무조건 맞는 말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지를 지워내는 속도가 곧 문학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길이 사람들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의 예시니까 맞는 말이네.
해설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을 독해해야 합니다. 근처를 읽어 보니, ‘벼랑 앞에’서 사람들에게 ‘낭패’를 주는 것은 ‘길’이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관점’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뜻’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 성찰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상황이잖아.
해설	사람들은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런 사람들이 ‘길’이 사람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선지의 ‘내적 성찰’과 대응될 텐데, 이로부터 ‘세상 사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을 독해할 수 있네요.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니,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쏘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부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네.
해설	‘하늘에 별들’이 ‘꽃’처럼 ‘난만’(꽃이 활짝 피어 화려한 모습)하다는 것, 그리고 ‘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준다는 것 등은 모두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	8%	6%	77%

24.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쏟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뇌가 어딴어.
해설	‘구월’은 ‘고운 낙엽’이라는 자연의 모습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고뇌’를 허용할 근거는 보이지 않네요. 애초에 (가)의 주제와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
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
겠습니까.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신을 만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해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이 주신 ‘수선화’를 보고 ‘노란 슬픔’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한 적도 없고, ‘기대감’이 아닌 ‘노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근거도 있으니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디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독감은 주제랑 너무 어긋나지.
해설	‘어젯밤’은 화자가 혼자서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고,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육보름 밤을 의미합니다. ‘고독감’을 허용할 근거가 전혀 없네요. 애초에 두 작품의 주제와 크게 어긋나기도 하죠?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건주어 보았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재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향에 대한 내용도 없고, 후회하지도 않았지.
해설	(가)의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밤’ 신나게 자연을 즐길 뿐이에요. 나아가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처녀’를 아름다움에 빗대보던 시간이지,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허용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네요.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밤이 아직 썰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겁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근거가 그대로 있네.
해설	‘인기척 끊’긴 ‘한낮’에 화자는 생각에 잠기어 왔다고 했고, ‘이 남은 밤’에 글쓴이는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내용 그대로 지문에 적혀 있으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	9%	3%	78%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득히 왔더니라가 첩첩한 산길이랑 머언 생각에서 반복적으로 쓰였네.
해설	‘아득히’와 ‘왔더니라’라는 표현은 ‘첩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대응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첩첩한 산길’이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과 대응된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종종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물소리에 흰 돌이 된 것 같다고 했으니 자연과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해설	화자는 ‘백화 앙상한 사이’를 지날 때 자신이 ‘흰 돌’이 되어 ‘물소리에 ‘씻기우’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화’와 같은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그로부터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정서를 느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애초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3연의 ‘오래여 작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살다가 오래여 작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 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래된 것들이니까 허용되겠다.
해설	‘유구함’이라는 단어는 ‘아득하게 오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목들’은 ‘오래’되었고, ‘봉우리’는 ‘풍설’에 깎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견뎌왔다고 했으니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구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도, ‘자연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 작품의 주제 그 자체이므로 일단 허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썩아’, ‘호르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살다가 오래여 작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 더니라

썩아 — 한중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음성 상징어니까 생동감 있다고 할 수 있지.
해설	이러한 음성 상징어들을 사용하면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지? 가볍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태도 변화가 어딴냐.
해설	화자는 ‘동해안’에서도, ‘산장’에서도 그저 자연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즐기고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이 ‘대조’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를 통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태도 변화’라는 엄청난 반응은 우리가 놓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2018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니, 꼭 스스로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10%	13%	66%	3%

26.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는 [A]의 예시지.
해설	앞 문제를 풀면서도 확인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을 ‘벼랑 앞에서’ ‘낭패’시킨다는 내용과 [B]의 내용은 모두 [A]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길’이 ‘사람들의 뜻’을 그대로 좇지 않는 예시에 해당하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문장들의 관계만 따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B]와 같은 경험을 하자, ‘사람들은 [C]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람들의 착각’이었지만요.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맞네.
해설	사람들은 [B]와 같은 일을 겪고서 [C]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D]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D]에 따르면 사람들은 ‘길’이 ‘내적 성찰’을 돕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문장 그대로 읽어내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길이 뜻을 굽히지는 않았지.
해설	정확하게 독해해야 합니다. [E]에 따르면 ‘길’은 자신이 안으로 나 있다는 것, 즉 ‘제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B]와 대비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길’은 ‘제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제 뜻’을 아는 사람에게 잘해줄 뿐이죠. ‘고분고분’이라는 말로부터 ‘복종’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고, ‘복종’이라는 말에는 ‘제 뜻을 굽’힌다는 느낌이 있기에 그럴듯해 보였던 선지였습니다. 평가원은 이렇게 단어의 일상적 의미가 지문의 맥락적 의미와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단어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지문의 맥락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거의 주제에 가까운 내용이네.
해설	사람들이 ‘길’의 진짜 뜻을 모르던 [A]의 태도와, ‘길’의 진짜 뜻을 깨달은 [F]의 태도는 당연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인식 변화’가 곧 (나)의 주제였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0%	71%	10%	5%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뭐 그렇지.
해설	이 지문의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독자로 하여금 수신인이 된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허용이 되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중략)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껴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껴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슴의 병을 얻은 건 처녀였지.
해설	글쓴이의 ‘노란 슬픔’에 공감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글쓴이는 어릴 적 좋아했던 ‘처녀’가 ‘가슴의 병’을 얻었던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처녀’를 닮은 ‘수선화’만 보면 ‘노란 슬픔’이 차올랐던 것이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독해한 내용이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밤이 아직 쉼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짚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 육보름: 정월 대보름 다음날.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육보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뭔데?
해설	글쓴이는 ‘육보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 ‘당신’의 경험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육보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나타나지도 않았죠? 나아가 <보기>에 따르면, 이 선지에서 말하는 ‘삶의 양면성’은 ‘슬픔’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보름’은 ‘즐거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틀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이렇게 ‘양면성’과 관련된 내용을 틀리게 하는 문제들은 기출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번,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36번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팽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탈적 행동이 용인된다고 했지.
해설	‘육보름’에 벌어지는 일종의 마을 축제는 일탈이 잠시 용인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일탈인데, 이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 ⑤ ‘자갈자갈’,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낚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웅쾌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하는 밤입니다. …(중략)…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깨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갈자갈, 끼득깨득은 너무 즐거워 보이네.
해설	‘자갈자갈’과 ‘끼득깨득’이라는 음성 상징어는 ‘새악시 처녀들’의 ‘즐거움’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운문문학 독해 연습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양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충충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화자는 ‘아득히 첩첩한 산길’에 왔습니다. 인기척도 끊기도 새·짐승도 없는, 말 그대로 아득하고 첩첩한 곳인데, 화자는 그곳을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다고 합니다. 이때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은 ‘아득히 첩첩한 산길’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한낮’에 생각에 잠겨 이곳으로 왔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썩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 낙화같이 지더니라.

그곳은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등이 있는 곳입니다. 나아가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와 ‘바람소리’ 등이 들리고, ‘낙엽’이 ‘낙화’같이 지는 곳이네요. 별다른 내용 없이 ‘첩첩한 산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쏘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화자는 ‘어젯밤’에 ‘동해안 어촌’에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장엄히 뿌려진 ‘바다의 별’을 봤는데, ‘오늘밤’에는 ‘산장’에서 ‘하늘에 별들’을 보고 있네요. 지금 보고 있는 별들은 마치 꽃처럼 난만하게 펼쳐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첩첩한 산길’을 비롯해 화자가 경험했던 여러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겠죠?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안다고 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자가 보기에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로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히 ‘길을 만들었다.’가 아닌 ‘길이 순순히 우리의 뜻을 좇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만든다=뜻을 좇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도 하나의 글처럼 독해하면서 재진술을 체크해주시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길’은 사람들을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기도 하고, ‘큰물’에 ‘제 허리’를 동강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정’은 ‘일부러’의 방언인데, 해석해보면 큰물에 일부러 자기 허리를 동강 낸다는 것이네요. 쉽게 생각하면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잠긴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길)를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죠. 물에 잠겼으니 ‘길’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은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원래 의도 (건너갈 수 있게 함)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길’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길’을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를 구경시켜 주는 것은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화자는 이 생각 역시 ‘사람이 길을 만들었다.’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길’의 뜻이 ‘밖’에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데에만 있는 줄로 알고, ‘길’이 사람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내적 성찰을 하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고 해요. 화자가 생각하기에 ‘길’은 단순히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길’을 걸으면서 사색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길’이 사람들의 ‘안’으로 들어가게 유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길’이 사람들의 내면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하겠죠?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이렇게 ‘길’이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길’은 굉장히 고분고분합니다. 그래서 ‘꽃향기’를 주기도, ‘그늘’을 드리워주기도 하면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내적 성찰’을 도와주는 것이예요. 이렇게 ‘길’이 사람들의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내적 성찰’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는 건방진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 두 연에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밖’과 ‘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며 독해해야 하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서 현대시의 고수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③ 수필 독해 : 운문문학과 마찬가지로, ‘주제’ 위주로 빠르게 읽어 나갑시다. 하지만 선지 판단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 주저 없이 정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필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지문 내용 총정리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전형적인 현대시+수필 세트였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일상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독해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선지 판단의 원칙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네요. 모든 면에서 무난한 지문이었으니,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